

고흥군, 금어기 유휴어선으로 소득지원·환경 개선

어업인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고흥 바다



금어기를 맞은 고흥군 어업인들이 유휴 어선을 활용해 소록도와 거금도 해역에서 폐어구 등 침적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낙지·문어 등의 금어기 기간 조업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다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금어기 유휴 어선을 활용해 어업인과 고흥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 연안 해저에 침적돼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 환경을 저해하는 폐어구 등 침적 폐기물과 해상 부유 쓰레기를 어업인이 직접 수거해 육상으로 운반하면 고흥군이 이를 적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3일 소록도와 거금도 공유수면 일원 300헥타르를 대상으로 침적 폐기물 등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작업에는 금어기 유휴 어선 54척과 청정고흥호가 함께 참여해 총 67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보성, 명사초청 강연개최... 선우용여·전원주

보성군은 7월 14일 오후 2시 30분 별교읍 채동선음악당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보성군 명사초청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행복한 군민이 만드는 더 활기찬 보성'을 주제로 열리며,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오랜 시간 방송과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선우용여'와 '전원주'가 강연자로 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두 강연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험과 일상 속 행복을 찾는 방법, 건강한 삶의 태도, 웃음과 희망의 가치를 쉽고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으로, 참석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는 물론 삶의 활력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관내 취약지역 현장점검

주말 동안 많은 양의 장마비가 예고된 가운데, 해남군은 3일 침수 우려 농지 등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명현관 군수와 부서별 담당자들이 함께한 이번 점검은 해남읍 고도리 도시계획도로의 빗물받이 정비현장을 비롯해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해남읍 남천마을의 농경지 등을 돌아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흥사 초입에 위치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사면 구림마을과 지난 2021년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바 있는 구산천 재해예방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구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제방 11.46km와 호안 12.16km, 교량 4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방 공사는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건의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조급시장에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문화 운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각 진도군수, 황동석 진도경찰서장, 진도군청과 진도경찰서 관계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운동(캠페인)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실천 ▲군민안전보험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관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추락재해 예방 ▲폭염 5대 안전 수칙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부했다.

참여자들은 안전 생활과 관련된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손팻말(피켓)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알리며 재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최근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국고건의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수, 부군수 및 주요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덕 연지~장흥 순지 4차로 확장 ▲안양 기산~해장 시설개량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국립 신북 구석기 박물관 건립 사업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근 기자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국 대회서 메달 6개 목에 걸어



강민우 선수, 전국 남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인상, 용상 합계 각각 3위 차지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이 전국 무대에서 무려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도 명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군 역도실업팀은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제98회 전국 남자 역도 선수권 대회' 및 제40회 전국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만큼 전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모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의 간판 임정희(+87kg급) 선수는 노련한 경기운영과 폭발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인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상과 합계에서도 각각 2위(은메달)를 기록,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팀의 중심 역할을 톡

톡히 해냈다. 다만 치열한 점전 끝에 아쉽게 국가대표 선발 라인에는 들지 못한 진한 여운을 남겼다.

남자부의 강민우(85kg급) 선수는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 3개를 추가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아쉽게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김동민, 김이안 선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단상에 서겠다"면서 훈련에 매진하겠다는 뜨거운 각오를 다졌다.

서호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감독은 "힘든 훈련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좋은 성적을 내준 선수들 전원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다음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SAMSUNG
삼성전자

SK hynix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00조 반도체

환영합니다!

미래 100년
첨단산업 중심도시

반도체 산업으로
대한민국 성장 견인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MAHAN CITY
마한씨티

마한씨티 임직원 일동